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양진건(제주대 교수)

I. 序論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했으며, 그가 읽은 책들은 어떤 계열, 어떤 성격의 것이었고 독서법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대체적으로 독서는 한 개인의 인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독서활동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학문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얻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서활동은 비단 한 개인의 인격 형성에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던 당대의 시대정신과 지적 풍토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미 사회적이며 공적인 활동이기 조차하다.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그 대개가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또한 학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배가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제한되었고 학자적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유배인들은 이를 계기로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저술과 독서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인격적 수양은 물론이며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길 수 있었다. 더욱이 제주도와 같은 절해고도에 갇힌 유배인들로서는 저술과 독서활동만이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제주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이란 매우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애초 영향이라는 표현이 갖는 까닭도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지방교육사 연구의 최대 난관인 사료의 절대적인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래서 파편적 사료들을 갖고 전체를 복원코자 하는 무리가 바로 그런 문제를 파생시키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적인 사료들을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41-C00607)

기반으로 해서나마 유배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영향의 어떤 정황을 드러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의도이며 욕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료의 부재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桐溪 鄭蘊과 尤庵 宋時烈 그리고 秋史 金正喜, 勉菴 崔益鉉 등 4명의 대표적인 제주 유배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독서활동의 면모를 밝혀보았으며 그로 인한 제주교육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주교육이란 제주도의 교육체제를 전반을 지적하기보다는 당대의 제주교육을 주도했던 제주도의 지식인들의 맥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유배인들과 제주도 지식인들과 교류 관계를 교육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II. 本論

1. 流刑과 濟州島

조선조는 창건 이후 체제안정을 위해 刑律을 정비하게 된다. 형률의 큰 원칙은 大明律에 의거하였으나 특별히 조선의 국정에 맞는 徒刑, 流刑, 贖刑을 결정하였는데 이때 제주도는 遠惡의 일급 유형지로 기능하게 된다.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遠隔地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¹⁾로서 그 본질은 자유형과 비슷하나 사형의 換刑으로 대치되는 사형완화법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유형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百濟本記』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부터 행해졌던 것 같으며²⁾ 실제의 법제화는 고려시대부터였다. 고려는 원대의 법전율을 따랐지만 고려 말에 이르러 명의 정치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明律準用이 나타난다. 이것이 조선조에 와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³⁾

유형은 『大明律直解』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황폐된 불모의 벽지나 해변의 州, 郡, 縣 내에 보내어 安置하는 제도였는데 徒刑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는 대명률에 따른 유형규정이 적용 가능하였지만 국토가 좁은 조선에서는 이를 따를 수 없어 유형의 遠近은 세종 12년(1430) 刑曹의 명에 따라 유배지역을 규정하였다.⁴⁾ 그러나 정치범이나 특수 범죄인에 대한 유배지의 선정은 왕정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일부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대개의 유배인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지의 원근거리가 책정되었고 유형기간으로서의

1) 『大明律直解』 名例律, 五刑名義, “流配謂人犯重罪刑殺流法遠方終法遠方終身不得回歸”

2) 『北史』, 百濟傳, “其刑罰反逆退軍及殺人者斬盜者流”

『三國史記』, 新羅本紀, 興德王 三年條, “漢山州瓢川人妖人自言有速富之術衆人頗惑之王聞之曰執左以或衆左刑之先王之法也投界其人遠島”

3) 『太祖實錄』 卷1, 元年, 七月, 乙巳條. “自令京外刑決官凡公私罪犯心該大明律.

4) 『世宗實錄』 卷50, 12年 潤12月 11日條. “京城留後司京畿三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二千五百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二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중신형이었다. 유배인은 일단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으로서 減 1等된 죄인이었으며 그들의 성분은 대개가 정치범이었다. 정치범으로 단죄되어 유배된 유형인은 사면령이 내리든지 아니면 정치정세의 변동이 일어나든지 하지 않으면 일생 歸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에는 내용상 그 종류가 遷徙, 付處, 安置가 있었는데⁵⁾ 대개의 제주도 유배는 안치의 유형으로 이른바 絶島安置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유형 중에 가장 가혹한 조치가 이른바 절도안치로서 중죄인에 대한 응징적 의미를 갖고 원악의 도서에 유폐시키는 유형제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삼읍에는 “죄명이 특히 무거운 자가 아니면 定配되지 않는다.”라든가 “제주목에는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정배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특히 절도안치로서 제주도의 유배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⁶⁾

또한 중죄인에게는 적소를 가시울타리로 에워싸 그 안에 유폐시키는 圍籬安置라는 중언금이 함께 가해지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위리안치는 “不可與家屬混處”라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절도안치되고 또한 위리안치된 유형자는 가장 가혹한 형벌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수령이었던 까닭에 수령의 성격이나 재량권 활용여부, 유배인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위리안치의 형은 형식에 그치는 수도 많았다.

그런데 國初 유교입국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결과 학설의 대립, 학문의 파벌을 잉태시켰고 그것은 나아가 당파의 파벌로 분화되어 정권다툼으로 이어져 끝내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나 당쟁 등의 黨獄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유형이 남발하게 된다.

특히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권력투쟁에 따른 당쟁의 격화로 절도안치가 남용되어 당대의 名儒들이 제주도에 유배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는데 그 수가 타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조 지역별 유배인 수를 조사해 보면 제주도 大靜縣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도 대정현은 조선조 정책적 유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조의 선비들에게 있어 유배라는 것, 나아가 제주도 유배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일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 유배라는 것은 때로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나 규범과도 엮물려 있어 한편으로 염치와 명분의 징표가 되기도 하였다. 선비들의 儒疏, 성균관 생도들의 捲堂, 空館에서부터 言官과 史官들의 諫言과 直筆 등 세속적 명리나 일신의 편안을 결연히 버릴 수 있었던 태도들의 연장선상에 유배가 놓여 있었던 예는 비일비재하였다.

2. 流配와 讀書

조선조의 선비들은 修己治人(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을 전제로 한 士大夫(학자관료)로서 학문적 소양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또한 학자였다. 따라서 그들이 유배되거나 정계에서 은퇴할 때에는 학자적 측면이 부각되기 마련인데 특히 정치적 우승투쟁의 결

5) 遷徙는 “遷離鄉土一千里外”로서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피해적 성격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로 관원에게 과해진 형벌의 일종이다. 安置에는 本鄉安置, 絶島安置, 圍籬安置가 있다.

6) 『大典會通』 刑典, 推斷.

7) 『韓國人名大辭典』, 서울, 新丘文化社, 1983.을 기초로 할때 朝鮮朝의 인물 40,000여명 가운데 流配者는 대략 800여명이며 流配地는 240여개처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濟州島 大靜의 경우는 34명 정도가 流配되는데 이는 단일 流配地域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다.

과로 야기된 유배의 경우에는 그러한 학자적 생활이 더욱 치열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독서활동이었다. 그들은 결국 독서활동을 통해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동화를 통해서 죄수라기보다 讀書人으로서 자기완성의 여러 성과를 남긴다.

士大夫로서 유배인은 그 대부분이 유학자들이기 때문에 유학자의 독서관이 곧 그들의 독서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 유학자가 대개 그러하였듯이 유배인들의 경우에도 일생의 尊信이 모두 朱子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배인들 대부분은 朱子의 독서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자의 독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유배인들의 독서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자의 학문적 관심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지배하는 도리를 규명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도리를 담고 있는 책을 읽는 문제 즉 독서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자가 이처럼 독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에게 있어서 독서는 第一義的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주자는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을 통해서 성인이 발견한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독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理를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니며 第二事로 여겼다.⁸⁾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의적인 것이고 독서는 그 이를 구명과 올바른 인식에 필수적이지만 第二義的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서 聖賢의 뜻을 살피고 성현의 뜻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살핀다는 것이 주자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문을 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은 모름지기 번거롭고 세밀한 것들도 참아내는 인내심과 깨끗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들뜬 기분이나 조방한 마음에서는 참된 독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서에는 지름길이나 왕도가 없다. 진리는 몇 겹의 외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한 껍질을 벗겨내어야만 비로소 그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 皮를 벗겨내야만 肉을 볼 수 있고 육을 제거해야만 骨을 볼 수 있고 골을 제거해야만 髓를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이와 같이 차근차근히 인내심을 가지고 세심한 마음으로 해야지 조방한 마음과 성급한 자세로서는 불가능하다.”⁹⁾

주자는 만년에 임금에게 올린 『行宮便殿奏劄』에서 학문을 하자면 먼저 궁리하여야 하고 궁리를 하자면 먼저 독서를 하여야 하는데 그 독서법은 학습순서를 情致하게 따라야 하고, 정치하게 학습순서를 따르자면 먼저 居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의 교육론을 결론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는 독서법이야말로 발달단계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다. 주자의 문인 輔漢卿은 주자의 독서법 6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居敬持志 : 정신을 집중하여 한결 같은 마음을 지닌다.

둘째, 循序漸進 :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히 나아간다.

셋째, 熟讀情思 : 정독하면서 깊이 사색한다.

8) 『朱子語類』,卷10, “讀書乃學者第二事讀書已是第二義蓋人生道理合下完具所以要讀書者蓋是未曾經歷見許多聖人是經歷見得許多所以寫在冊上與人看而今讀書只是要見得許多道理及理會得了”

9) 『朱子語類』,卷10, “爲學讀書須是耐煩細意去理會切不可粗心若曰何必讀書自有个捷徑法便是慢人底深抗也未見道理時恰如數重物色包裹在裏許無緣可以便見得須是今日去了一重又見得一重明日又去了一重又見得一重去盡皮方見肉去盡肉方見骨去盡骨方見髓使粗心大氣不得”

넷째, 虛心涵泳 : 잡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텅 빈 마음으로 정신을 노닐게 한다.

다섯째, 切已體察 : 깊은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着緊用力 : 요점을 잡아 힘쓴다.

주자는 독서를 수양의 방편으로 여겼다. 따라서 독서를 위한 독서는 妄知이다. 주자 수양론의 근거는 主敬에 있다. 경이란 ‘집중’이다. 이것이 곧 공부이다.

이러한 주자의 독서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배인으로 1873년 12월 4일부터 1875년 4월 12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勉菴 崔益鉉이 있다. 그는 당시 집권자인 대원군의 정책에 대해 道學的 義理論에 따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큰 과문을 일으킴에 따라 제주도 유배를 당하게 되자 유배생활을 곧바로 서재생활로 전환하는데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고 또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 1권을 빌어 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¹⁰⁾고 하였다. 주자의 독서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면암의 독서활동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진술이 아닐 수 없다.

주자는 독서를 할 때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고 깊게 천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虛心’, ‘平心’, ‘靜心’을 가지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빈 마음과 평정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사색을 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바람직한 독서의 법은 한 번 읽고 또 한 번 생각하며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읽는 것이다.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읽지 않으면 그 이해가 불충분한 것이 되기 쉽다. 주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듯이 독서를 할 때에는 道理를 철저히 窮究하기 위해서 思索의 소화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주자는 이같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구나 책을 읽다가 알지 못하는 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주자는 독서의 방법으로 熟讀을 권했다.

대개 책을 볼 때에는 먼저 熟讀을 해서 그 말이 모두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듯이 하고 계속해서 精하게 생각을 해서 그 뜻이 모두 다 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듯이 한 연후에야 가히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熟讀을 하고 情思를 해서 이미 밝게 깨친 이후라도 또 반드시 의심하기를 그치지 않아야만 공부에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¹¹⁾

독서를 할 때에는 많이 읽으려고 욕심 내서는 안 되며 오직 精思, 熟讀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먼저 숙독을 해서 책을 깊이 이해한 뒤 바로, 뒤로, 우로, 좌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었다.¹²⁾ 이와 같이 주자는 독서의 방법으로 熟讀, 精思의 방법을 권하였다. 이러한 주자의 독서법을 거의 그대로 준수한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제주 유배인들이었다.

3. 流配人과 讀書活動

1) 桐溪 鄭蘊의 讀書活動

10) 『勉菴集』, 年譜, “先生杜門燕居日將朱子書楮環讀又借校宮所儲尤菴集日映潛心玩索頓忘湘累又苦”

11) 『朱子語類』, 卷10, 大抵觀書先須熟讀使其言皆若出于吾之口繼之精思使其意皆若出于吾之心然後可以有得爾然熟讀精思曉得後又須疑不止如此庶幾有進.

12) 『朱子語類』, 卷10, “讀書之法先要熟讀須是正看背看左看右看”

광해군 6년(1614) 永昌大君의 옥사에 대해 상소하고 그 가해자에 대해 참수할 것을 주장하다가 그 해 8월 제주도에 유배되어¹³⁾ 仁祖反正까지 9년 5개월을 지낸 동계 정온은 처음에는 鄭仁弘을 스승으로 하여¹⁴⁾ 大北이 되었으나 뒤에 정인홍과의 알력 때문에 스스로 제자의 籍을 없애고 中北이 되었다가 다시 인조반정 후 南人이 된 사람으로 그의 학문됨은 일찍이 曹植 → 鄭仁弘 → 鄭蘊으로 이어지는 소위 남명학파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후일에 가서는 退溪 → 鄭述 → 鄭蘊의 퇴계학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동계의 학문경향은 제주도 유배를 전후하여 크게 질적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유배 때에는 아직 性命을 닦은 후의 실행을 주창하고 경의를 신조로 하여 反躬體驗과 敬啟實行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던 남명의 학문경향을 따랐었던 때였다.

그는 제주도 유배생활에 대해서는 『桐溪集』에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다.

“邑(縣監)이 선생을 위해 書室 두 칸을 만들어 주었는데 옆의 서쪽 圍籬 앞으로는 橋林을 마주했다. 선생은 날마다 그 안에 거처했으며 經·史·子·集 수백 권을 다락 위에 올려 놓고 10년 동안 돌아가며 열람하였다. 大易에는 날마다 上訴(卦) 한 통을 외우면서 깊이 연구하고 啓蒙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자리에 들었고 아침이 되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단정히 앉아 읽고 외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¹⁵⁾

經·史·子·集 수백 권을 10년 동안 돌아가며 열람하였다는 언급은 동계의 독서활동의 그 깊이나 폭이 과연 어떠한 경지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동계는 유배 올 때 많은 서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독서로써 일과를 삼을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중국 殷代부터 南宋時代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곤란과 우환을 당하여도 정도를 잃지 않았던 59명의 행적을 모아 『德辨錄』이라 하여 自省書로 삼았고, 매년 정월 초하루 새벽에는 自警箴을 지어 연중 自警書로 하였는데 자성과 자경이란 곧 학문과 인간자아의 주체를 지키는 자세이자 그 기반이다. 이러한 독서 태도는 주자의 독서관을 그대로 반영한다. 주자는 어디까지나 독서를 제이의적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연히 제일의적인 중요성을 갖는 자기 자신의 理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서를 통해 파악된 성현의 뜻과 이치를 몸소 實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현의 말씀은 밝기가 해와 달과 같다(聖賢之言明如日月)고 생각한 주자는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해도 성현의 밝은 도로 자기의 無知와 無明을 깨우쳐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단지 종이 위의 문외의 파악에만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¹⁶⁾

2) 尤庵 宋時烈의 讀書活動

조선 중기 성리학의 鉅儒이며 老論의 영수였던 우암은 숙종 15년(1689) 왕세자(景宗)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가 83세의 고령으로 제주도에 유배된다. 111일을 머물다가 鞫問을 받기 위해 상경 도중 南人의 책동으로 정읍에서 사사되는데 그의 유배기간은 111일 밖에는 안되었지만 당대의 석학이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의 파장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그의 내도 자체가 제주도에겐 교육적 충격이었으며 큰 자극이었을 것

13) 『光海君日記』 卷11, 6年 甲寅 2月 丙午條 “兩司語鄭蘊極邊安置”

14) 金堉 『海東名臣錄』, “蓋公自幼受學於鄭仁弘”

15) 『桐溪集』, 卷1, “邑傳爲先生作書室二間傍西籬前對橋林先生日需其中經史子集累百卷閣之架上十年之間皆環觀賢大易則日誦一封精究啓蒙夜深而寢至初拂衣端坐誦讀不輕其紀吟”

16) 『朱子語類』, 卷11, “讀書不可只專就紙上求理義須反來就自家身上推究”

“今人讀書多不就切己上體察但於紙上看文義上說得去便了如此濟得其事何必讀書然後爲學”

이라는 것은 甲戌獄死(1694)로 西人이 집권하면서 그가 伸冤되자마자 서둘러 굴림서원에 향사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학문은 추상적이며 공리공론을 일삼는 이론성리학 차원에 안주하지 않고 공자의 중심 철학인 心法學과 道學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經世學의 대표자인 趙光祖, 李珣, 金長生으로 전수되는 도학과 예학을 계승하여 直哲學과 심법학을 발전시켰다.¹⁷⁾ 그런데 이러한 김장생 → 송시열의 계보는 특히 의리를 내용으로 하는 예학을 중시했었기 때문에 우암은 이른바 의리학파를 여는 개산조이기도 했다.

그의 제주 유배생활은 『宋子大全』에 아주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즉, “圍籬安置된 뒤로는 매일 손자 疇錫과 함께 『朱子大全』, 『朱子語類』, 『易學啓蒙』, 『綱目』 등의 책을 보았다.”¹⁸⁾는 진술에서 보듯이 오로지 독서생활로 일관하였다. 우암의 독서활동은 전적으로 朱子에 집중되고 있는데 조선시대 내내 도학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자의 경학체계는 강력한 정통적 권위를 지켜왔으며 특히 우암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주자의 경학체계에 어긋나는 경전해석을 斯文亂賊으로 규정하여 배척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 주자의 독서관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자는 독서의 목표를 道理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견을 갖거나 독창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오로지 성현의 뜻이 담겨 있는 책 자체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만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책은 책으로 보아야 하고 물은 물로 보아야 하지 먼저 자기의 견해를 내세워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책을 볼 때에는 자기의 주견이나 입장을 버리고 허심탄회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글을 깊이 읽어야 하며 먼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正文을 읽어서는 불가하다고 했다. 이렇게 주자가 독서를 할 때 읽는 사람의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성현의 말씀이 담긴 책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말에 다름 아니며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서투른 자기의 견해나 立論을 세우지 말고 오직 성현의 거룩하고 훌륭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 신경 쓰라는 것이다.

성현의 거룩하고 훌륭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하는 주자의 ‘虛心’, ‘平心’, ‘靜心’의 독서관은 우암에게서 그대로 재현된다.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우암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加律의 啓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선생의 조카 基德과 從孫 康錫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오자 온 집안이 驚惶하여 통곡하였으나 선생은 웃으며 나는 이 몸을 時人에게 내어 준 지가 이미 오래다하고 책 보기를 그치지 않았다.”¹⁹⁾ 時人 즉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어 준 지가 이미 오래다면서 독서에 열중하는 우암의 태도는 주자라는 성현의 거룩하고 훌륭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하는 ‘虛心’, ‘平心’, ‘靜心’의 독서관 바로 그것이다.

3) 秋史 金正喜의 讀書活動

17)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中卷, 東明社, 1987, 363쪽. 心法學이란 17세기를 전후하여 연구되고 정리된 心의 虛名性和 對應性を 포괄하여 그것을 感營하고 實踐하는 학문으로서 直哲學과 道學에 깊이 뿌리하고 있다 그리고 宋時烈 학문의 첫째라고 일컬어지는 直哲學은 주체적 형이상학의 방법을 의미하는 正直의 철학이라고 하며 孔子, 孟子, 朱子, 李珣로 이어지는 道學精神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 權五惇 譯, 『宋子大全』, 大洋書籍, 1982, 241쪽.

19) 權五惇 譯, 上揭書, 大洋書籍, 1982, 242쪽.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독서활동을 보여준 사람은 단연 추사 김정희이다. 실학의 실사구시 학파의 開山祖로서 그는 朴齊家를 첫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되고 연경 예방으로 淸朝學的 전통을 승계 함으로써 실사구시의 방법론을 인식하게 되어 약관의 나이에 몸소 학파의 원류로서 두각을 보이게 된다. 그는 안동김씨의 정치극으로 자행된 헌종 6년(1840)의 尹尙度 獄事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출사기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55세 때 유배되면서 종신무기수로서 9년간의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된다.

추사가 유배지 제주도에 왕성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자 이상적의 덕분이었다. 이러한 이상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 바로 「세한도」였다. 추사는 이상적에게 그려준 「歲寒圖」 발문에 “지난해에 桂馥의 『晚學集』(1841)과 惲敬의 『大雲山房文庫』(1811)의 두 가지 책을 보내주더니, 올해 또 賀長齡의 『皇朝經世文編』을 보내주었네.”²⁰⁾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추사는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천만 리 먼 곳에서 사오고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으로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을 것일세.”²¹⁾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적은 1841년 10월부터 1842년 3월까지 제5차 燕行을 다녀오고 1842년 10월부터 1843년 3월까지 제6차 연행을 다녀오면서²²⁾ 추사가 부탁했던 이 책들을 구입하거나 직접 구할 수 없는 책들은 구입을 부탁하고 돌아온 뒤 서울에서 책을 받아 1843~4년에 걸쳐 추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다. 추사가 「세한도」의 발문에서 이 책들을 여러 해에 걸쳐 매우 힘들게 구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함이다.

사실 추사는 이 무렵에 제주도에 이 책들이 도착하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 추사가 유배 초기인 1841~2년경에 동생 金相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상적에게 부탁했던 책 보통이 는 어느 때나 부쳐올지 모르겠네.”²³⁾라고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이 책들에 대해 소식을 물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적은 무려 12번이나 중국에 다녀올 정도로 19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역관으로 활약했는데 1830년 봄에 28세의 청년으로 처음 중국에 다녀온 뒤 바로 龍湖의 추사를 찾아가서 인사할 정도로 일찍부터 추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추사가 중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추사는 평소 이상적의 빈번한 연행과 주선을 통해서 국내에 앉아서도 중국 학예계의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학예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상적은 추사의 명성과 후광을 통해서 추사가 맺고 있었던 북경 인맥을 활용하여 단순한 역관으로서의 신분을 넘어서 극진한 문사 대우를 받으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사는 1840년 9월에 청론 계열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무고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減死一等으로 겨우 살아난 뒤 절해고도의 제주도에 위리안치 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은 역관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무릅쓰고 모든 권세와 이익을

20) 「歲寒圖」, 跋文, “去年以大雲晚學二書寄來今年又以蕩研文編寄來”

21) 「歲寒圖」, 跋文, “此皆非世之常有購之千萬里之遠積有年而得之此一時之事也”

22) 鄭後洙, 『朝鮮後期中人文學研究』, 깊은샘 1990, 62쪽.

23) 『阮堂全集』, 卷2, 與舍季相喜, 二, “李君尙迪許所託徐包不知何時可得付來耶”

24) 崔完秀, 「秋史實紀」, 『潤松文華』 30號,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59-94쪽.

상실한 추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었다. 그래서 추사는 꼭 한번 보고싶었던 이 책들을 이상적에게 부탁했다가 1843~4년에 제주도에서 전해 받고 이상적의 변치 않는 마음과 고마운 정성에 진심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세한도」를 그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추사는 훗날 이상적이 보내준 『만학집』과 『대운산방문고』를 회고하며 소동파가 해남도에 귀양갔을 때 지니고 있었던 도연명과 유종원의 문집을 南遷二友라고 불렀던 것에 비긴다고 해도 거의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며²⁵⁾ 『황조경세문편』은 재미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누구와 더불어 같이 맛볼 길이 없어서 몹시 안타깝다는 편지를 동생에게 보낼 정도로²⁶⁾ 추사의 제주 유배에서 이 책들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만학집』은 추사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翁方綱(1733~1818)이 표제를 써주고 阮元(1764~1849)이 서문을 써주었는데²⁷⁾ 옹방강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절해고도의 유배지 제주도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추사에게는 더욱 각별한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藤塚鄰은 이들 책과 그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논하고 있다.

“藕船은 濟州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阮堂을 생각하여 자주 물건을 보내서 위문하는데 성의를 다하였다. 4년째인 憲宗 9년(1843)에 그는 桂未谷의 『晚學集』과 惲子居의 『大雲山房集』을 北京에서 새로 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阮堂에게 이것을 보내 그의 심심함을 위로하였다. 阮堂은 翁覃溪 阮芸臺와 학문적 교류를 할 때 일찍부터 未谷의 學問書藝에 마음이 끌리고 또 葉東卿이라든가 李月汀의 서찰을 통해서 未谷에게 說文義證 五十卷의 위대한 저서가 있음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얽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그의 저서인 『晚學集』의 기증에 접하였던 것이다.

本書는 8권으로 되어 있고 道光 21년(1841)의 刊刻으로 標題紙에는 嘉慶丙辰의 翁方綱의 題名이 있다. 卷首에 藏祥遲의 『桂君未谷傳』 다음에 ‘助刻性氏’ 道光 21년(1841) 桂顯誥의 識語 다음에 乾隆 59년(1794)에 쓴 阮元의 序가 있고 卷末에는 道光 21년에 쓴 孔憲彝의 後序가 있다. 이는 未谷의 經述을 알기에 충분한 훌륭한 저서이다. 惲子居에 대해서도 전부터 알고 있었다. 『大雲山房文藁初集』 四卷은 嘉慶 16년(1811)에 家刻하였는데 二集 四卷 目錄凡雜文 九十六篇은 嘉慶 20년(1815) 長洲의 宋揚光吉甫가 廣州西湖街에서 刻하고 있는데 阮堂이 기증 받은 것은 初集 四卷뿐인 것 같다. 阮堂은 이 두 圖書를 얻고 각별히 기뻐하였다.

藕船은 또 이듬해인 道光 24년(1844) 賀耦庚의 編이라고 칭하는 『皇朝經世文編』 一百二十卷 七十九冊을 구하여 멀리에서 기증하였다. 本書는 道光 7년(1827)의 刊本으로 自叙가 있고 春秋左氏傳의 書法의 五箇條의 義例인 五例를 들고 있다. 魏默深이 編纂하고 曹稼山이 校勘한 것이다.“²⁸⁾

추사가 『세한도』를 이상적에게 그려준 시기가 1844년임을 고려해 볼 때 『大雲山房文藁』는 1843년에 기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44년 3월에 그의 친구인 權彝齋에게 보낸 편지에 “『대운산방문고』는 귀하의 책장에 소장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도 한번보고 싶다. …(중략)… 初集, 二集 외에 또 外集이 있다. 귀하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만일 모두 구

25) 『阮堂全集』, 卷8, 雜識, “釋桂二集果是南遷二友之不足多矣”

26) 『阮堂全集』, 卷2, 與舍季相喜, 四, “文編中果有可喜處非一二無緣共嘗獨自看過亦有何意趣耶”

27) 藤塚鄰, 『清朝文化東傳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0年, 470 쪽

28) 藤塚鄰, 앞의 책, 453쪽.

비되어 있다면 잠시 빌려주기 바란다.”²⁹⁾고 했던 것으로 볼 때 추사가 이상적으로부터 기증 받은 것은 藤塚鄰의 지적대로 初集 四卷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대운산방문고』의 二集, 外集까지도 빌려 받고 보다 많이 熟讀, 阮味하여 참된 뜻을 구하려고 하는 추사의 왕성한 독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처지에 대해 추사는 “제주에 와서는 요즈음 자못 마음이 잠잠해지니 연구를 할 수 있어 시력을 심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機鋒을 撥轉할 상대가 없어서 때로는 책을 덮고 쓸쓸히 웃을 뿐이다. 아무런 敎正을 받을 길도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있다.”³⁰⁾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밖에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대하였던 서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9) 藤塚鄰, 위의 책, 455쪽.

30) 藤塚鄰, 上揭書, 456쪽.

- 『本草』: 명나라 李時珍이 편찬한 『本草綱目』 52권.
- 『詩醇』: 청나라 高宗이 편찬한 『御船唐宋詩醇』 47권.
- 『律髓』: 원나라 方回가 편찬한 『瀛奎律髓』 49권.
- 『書畫譜』: 청나라 孫岳頌 등이 奉旨贊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권.
- 『周易折中』: 청나라 聖祖가 御贊한 『御纂周易折中』 22권.
- 『藏進帖』: 명나라 萬曆 陳元瑞 刻의 『渤海藏眞帖』 8권.
- 『千字文』: 양나라 周興嗣가 편찬한 『千字文』.
- 『靈飛經』: 道經의 일종.
- 『藝海珠塵』: 不分卷 48책.
- 『海志』: 청나라 魏源이 쓴 西洋文物 소개서인 『海國圖志』.
- 『岐亭詩帖』: 蘇東坡가 黃州에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詩帖.
- 『清愛堂帖』: 청나라 劉墉이 法帖으로 만든 『清愛堂石帖』 4권.
- 『古器款識』: 鐵帖이 만든 金文圖錄 『十六長樂堂古器款識』.
- 『漢隸字原』: 南宋 婁機가 편찬한 書學에 관한 책.³¹⁾

이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책은 『海國圖志』이다. 『해국도지』는 淸朝의 魏源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로서 청조 말의 중국은 물론, 조선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후일 『萬國政表』 등이 간행되어 풍부한 해외지식이 제공되기까지는 해외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입문서였다. 이 책은 단순한 世界地史書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청국 公羊學派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서로서 조선 말기에 들어 朴珪壽와 柳大致 등을 통하여 金玉均 등의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

『해국도지』의 50권본은 1842년에 완성되어 1844년에 간행되었는데 김정희는 1845년에 벌써 이 책을 제주도에서 입수하고 있다. 1845년 막내아우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국도지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³²⁾ 이라고 쓰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책에다 베끼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는데³³⁾ 유배 중 김정희의 관심지향성을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또한 그는 知友 權敦仁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서도 “해국도지는 꼭 필요한 책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집의 많은 보물과 맞먹는다.”³⁴⁾고 쓰고 있다. 이렇듯 『해국도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근대조선의 개화사상을 낳는 한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4) 勉菴 崔益鉉의 讀書活動

당시 집권자인 대원군의 정책에 대해 道學的 義理論에 따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큰 과문을 일으킴에 따라 1873년 12월 유배를 당한 면암은 제주도에서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朱子書』를 외고 또 校宮에 간직된 『尤菴集』 1질을 빌어 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³⁵⁾고 하였다. 이러한 면암의 잠

31) 이 目錄은 『阮堂全集』에 실린 秋史의 流配書翰을 토대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32) 『阮堂全集』, “海志好作近日消遣三去而眼花如此不得如前日之看讀可歎”

33) 위의 책 “切欲抄錄空冊之大印札兩卷可以得送耶”

34) 같은 책 “海國圖志是必需之書在我似若他家數寶”

심완색의 독서활동 태도는 “독서를 할 때 단지 문자만 보아서는 안되고 쓸데없이 助長해서도 안되며 반드시 성현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일이 體察해야 한다.”³⁶⁾ 고 했던 주자의 독서관을 그대로 연상케 한다.

면암은 주자의 지적처럼 성현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일일이 體察하기 위해 주자와 우암을 독서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면암은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가? 퇴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여 조선후기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와 성리학자들은 퇴계의 理氣互發說과 율곡의 氣發一途說의 대립에 따라 이기설의 끝없는 철학적 개념논쟁을 계속하면서 이를 심화시켜 갔다. 면암의 스승인 화서는 이러한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리설로 하나의 정점을 이룸으로써 한말 성리학의 이론적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런데 화서는 “주자를 중주로 삼지 않으면 공자의 뜰에 들어갈 수 없고 宋子(송시열)를 본받지 않으면 주자의 정통에 접할 수 없다.”³⁷⁾고 언명하여 그 자신의 학통에 대해 공자 → 주자 → 우암 → 화서로 이어지는 맥락을 제시하였으며 그 뒤 화서학과에서는 언제나 이 학맥을 도학의 정통으로 확인하였던 까닭에 결과적으로 면암의 유배생활 동안에도 주자와 우암의 봉심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특히 면암의 우암에 대한 奉審의 도는 더욱 강했다. 여기에는 면암과 마찬가지로 우암 역시 한때는 제주도 유배인이었던 까닭에 정서적 연대가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선시대 도학의 이념적 기반인 주자의 경학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던 당대의 거유이기도 했으며, 우암이야말로 화서학과와 원류였기에 면암의 우암에 대한 傾斜는 당연한 것이었다.

동문인 중암 김평묵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는 “누생은 망령되게 宋書(송자대전)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요령을 만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으니 읽는 법을 두세 줄 글로 보여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⁸⁾라는 구절이 있는 것들을 볼 때 그의 우암 봉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면암은 제주 적소에서 교궁에 간직된 『尤菴集』을 빌어 잠심완색 하였으며 우암이 귀양살이하던 집에 세운 「尤翁謫廬碑」를 奉審하고³⁹⁾ 한편 「掛弓軒次板上韻」⁴⁰⁾이라는 시를 통해 면암은 유배의 심경을 우암을 빌어 토로한다. 해배 될 무렵에는 『橋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을 지어 우암의 공로를 찬양했다.

제주도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한가할 때 宋書를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견문이 얇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 지난달 그믐께 인편에 편지를 부치면서 고기 몇 마리를 동봉해 부쳤으나 언제 닿을지 모르겠다. 오직 부지런히 독서하고 정미하게 연구하여라.”⁴¹⁾하면서 우암에 대한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독서활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4.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35) 『勉菴集』,年譜, “先生杜門燕居日將朱子書楮環讀又借校宮所儲尤菴集日帙潛心琬索頓忘湘累又苦”

36) 『朱子語類』, 卷11, “不可只作文字看又不可助長學者當以聖賢之言反求諸身一一體察”

37) 『華西集』, 附錄 卷9, 5, 年譜, “學者不宗主朱子無以入得孔子門庭不憲章宋子無以接得朱子統緒”

38) 『勉菴集』, 書, 上金重菴甲戌十月二十二日, “纍生妄以宋書近數朔掛目而未得其領要之萬一幸以讀法數三行下示如何”

39) 『勉菴集』, 年譜, “三月奉審尤翁謫廬碑由天一亭運壽堂至橋林書院舊址”

40) 『勉菴集』, 詩, “掛弓軒次板上韻”

41) 『勉菴集』, 書, 答永祚甲戌四月十日, “余閑中看宋書日愧前者浪度幾之爲見也”

유배인들의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은 우선 죄인이라는 유배인들의 제한된 신분과 역할 때문에 일부 한정된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류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배인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영향은 제도적이기보다는 계몽적이며 형식적이기보다는 비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빈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인들과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당대 제주도 형편에서는 대단한 교육적 자극이며 의미 있는 영향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이러한 교류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독서활동으로 인한 영향의 세세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의 부재 탓도 크지만 독서활동만으로 결과된 한정된 영향만을 기술하기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제주도 지식인들과 교류라는 포괄적으로 측면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배라는 제도가 특히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으로 제주도 지식인들의 動機와 士氣를 진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제주도 지식인들이 圍籬安置되어 있는 유배인들을 직접 예방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을 목격하고 또 독서목록을 친견할 수 있게되었으며 그 영향은 다양하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일련의 계몽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

1) 桐溪 鄭蘊과 尤庵 宋時烈的 影響

동계나 우암의 제주유배 역시 제주도 지식인들에게 교육적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기에 그들의 독서활동도 큰 몫을 하였음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후일 그들이 제주도 굴림서원에 享祀되는 五賢 가운데 2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동계는 현종 10년(1669)에 그리고 송시열은 숙종 21년(1695)에 각각 향사된다. 특히 제주유생 金聖雨 등이 상소하여 우암이 굴림서원에 향사되던 숙종 21년은 이조판서 尹趾善이 書院疊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지방관과 減死의 논죄를 청하자 국왕은 모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 하에 서원첩설이 금지되었던 시기로 향사인물 선정 금령이 엄격하던 때였다.⁴²⁾ 이런 와중에 우암이 제주도 굴림서원에 향사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서원향사에 있어서 賜額과 비(非)사액은 그 경중이 달랐다. 굴림서원은 사액서원이었다. 사액이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서원이 되어 전답과 노비 및 서책의 일정량을 동시에 하사받으며 서원의 재정을 국가에서 보충 받게 되기 때문에 사액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더욱이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은 숙종 초의 분위기는 사액을 통한 서원보호책에 대하여 중신들 간에 강력한 반발이 일기 시작하던 때⁴³⁾였으니 만큼 더욱더 그러하였다. 굴림서원이 사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정치적 여건에 따른 회유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지만⁴⁴⁾

42) 『肅宗實錄』, 21年6月, 壬辰條 “吏曹判書尹趾善仍陳書院求請之弊請禁疊設左議政柳尙運又請如有疊設新建之祠則地方官及監司論罪之事定式施行上皆許之”

43) 『肅宗實錄』, 2年10月, 甲戌條에 “尙州儒生李在憲等上疏曰嶺南卽東方之濂洛也麗朝文忠公鄭夢周本朝文敬公金宏弼文獻公鄭汝昌文元公李彥迪文純公李滉等五賢先後輩出萬曆甲午文肅公鄭經世謀建學宮合祀五賢所謂道南書院是爾…恩賜未實乞允所望使儒賢俎豆之地衣被榮光…(禮曹)判書李元翼以爲此八賢各建書院皆賜額號而先朝有書院疊設之禁今不可疊設賜額號…領議政許積筵白曰禮曹防啓楷語過矣此院與他異圍隱及我朝四賢皆文廟從祀人也且柳成龍鄭經世相議建設如此者先朝亦皆賜額矣上特命賜額”이라 하였다.

역설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교육적인 격려가 될 수 있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유현 향사의 교육적 의미는 시대정신의 교육적 표현을 구체적인 인격 속에서 찾고자 했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는 곧 “서원에 가면 엄연히 그 사람을 보는 듯”(入其堂儼然若見其人)하여 뒤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처럼 되도록 感發興起케 하려는 교육적 의미인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독서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들의 집요한 의식집중이야말로 그 자체가 긍정적인고도 실제적인 교육내용이자 교육방법으로서 제주도 지식인들에게는 風流師宗의 한 예였을 것이며 제주도 지식인들은 굴림서원의 출입을 통해 그러한 예를 폭 넓게 공유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 秋史 金正喜의 影響

제주도에서 가장 구체적인 독서활동의 면모를 과시했던 추사의 영향은 동계나 우암 보다는 매우 구체적이다. 추사의 제주유배 활동의 결과는 후일 그의 학통을 잇고 『阮堂集』 五卷五冊을 편집하였으며 두 차례나 내도 했었던 내종질 閔奎鎬가 쓴 「小傳」에 잘 나타나 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짊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人文이 크게 개발되어 文彩나는 아름다움은 서울 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⁴⁵⁾

이렇듯 추사의 유배활동은 제주도 교육의 질적 변환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추사 특유의 독서활동도 한몫을 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추사는 모범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제주교육에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왕성한 사제관계가 이를 대변한다. 제자가 삼천명이라는 “阮翁門下三千士不負才名獨出群”⁴⁶⁾의 詩語가 시사하듯 그만큼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우강습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姜師孔, 朴啓瞻, 許珣, 李時亨, 金麗錐, 李漢雨, 金九五, 姜道淳, 姜琦奭, 金左謙, 洪錫祐, 金炳旭 등이 그들로서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 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서 소위 委巷階層이었다.

조선조 제주교육의 질적 변환의 구체적 예증은 추사와의 사우강습을 통해 발흥한 委巷文化運動⁴⁷⁾으로 나타나는데 제주도의 이 운동은 주로 추사와 만남을 가졌던 제주도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통해 金九五, 姜道淳, 朴啓瞻 등은 濟州筆苑으로 推仰되기도 한다. 이 운동의 하나인 篆刻運動⁴⁸⁾은 제주도 지식인들 가운데 金九五에

44) 『肅宗實錄』, 8年6月, 己亥條 “引見大臣備局諸臣先是濟州儒生以文簡公金淨參判鄭蘊謫居島中 文忠公宋麟壽爲本州牧使文正公金尙憲以巡撫御史入來島中瓶建四臣書院上疏請額該書以疊設前例防啓矣錫胄奏四臣俱有文學名節而海外之人能知尊慕此爲可嘉不可與陸地近眼紛紜疊設者比也上特許賜額”

45)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遠近負者如市數月人文大開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自公始”

46) 『姜瑋全集』, 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館送別”

47) 閭巷이란 원래 사대부와 서민의 중간 계층인 중인 신분계층이 사는 곳을 말한다. 실학의 대두로 말미암아 생활에 여유가 생긴 醫學, 譯學, 算學, 律學, 樂學 등 이른바 잡학에 종사했던 전문 지식인인 이들은 처음엔 관계 진출에 뜻을 두고 공부했지만 곧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되자, 문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며 이를 두고 위항문학이라고 한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만난 제주도 지식인들은 대부분 중인 신분이었으며 이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문학적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詩社를 결성하거나 전각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를 두고 필자는 위항문화운동이라고 하였다.

48) 篆刻은 동양 특히 중국권 문화의 독특한 순수예술이다. 전각은 한자의 篆書體를 새겨 조각하는 것, 즉 印章을 조각하는 것이다. 전서체를 쓰는 이유는 字形 획 등이 갖는 조형성이 돌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과

게 승계 되었으며 이어 金九五의 아들인 愚齊가 正統을 이었고 愚齊의 아들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다. 이어 金義男을 洪鐘時가 이었고 이어 朴判事(성명 미상)가 전승하는 등 조선 후기 특유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곧 제주도 나름의 교육운동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제주도의 위향문화운동은 유배인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학예적 흐름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淸의 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조선학예에 영향을 미쳐 김정희가 三絶의 高峰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중인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인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사의 독서활동은 단연 독보적인 모범이었다. 조선 후기의 이 같은 제주도의 문화운동은 조선 말기 제주도의 詩會 「橘園」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교육내용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추사의 학문관에서 기인한다.

“사람의 재주란 각각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 처음에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눈 밝은 사람이 열여 이팔여 줌이 없을 뿐입니다…그러다 보면 지혜와 식견이 월등한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에 큰 병은 게으름에 편안히 있는 것입니다. 태산 꼭대기를 가려면 다시 한 걸음을 나가야하는 것이라 언제나 탄식을 마지않습니다.”⁴⁹⁾

인간의 문화는 실은 철저하게 학습되고 계승되는 것이며 문화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인종의 재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개발되고 계승된 문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김정희는 철저히 믿고 있었다. 따라서 낙후된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 문혀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스승의 인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⁵⁰⁾ 그것은 제주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제주도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촉발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淸나라의 문화와 학자를 접하고 절해고도 제주도로의 유배편력을 통하여 추사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이 타고난 재능의 개발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신분(上下貴賤南北)에 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평범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계승 즉 교육에 의해서라는 것이 추사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 문화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중인계층의 詩才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 서

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서체만을 쓰는 것은 아니며 다른 書體를 쓰더라도 모두 전각이라고 한다. 전각은 반드시 돌에만 새기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당대 독특한 전각풍을 이루고 있던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使此中學徒輩摹刻) 재주가 좋은 제주도 사람이 죽자 매우 애통해 하기도 했는데(而此中善刻者間已化去是切悶然) 이렇게 당대 제주도에서는 추사를 통한 전각의 보급이 활발했는데 이를 두고 필자는 전각운동이라고 하였다.

49) 앞의 책 卷4, 與張兵使寅植, “人才各有天分初無界於南北特無明眼人開導之耳…果有慧識超異者否 此中大病在安於惰 欲向泰山頂上再進一步 每不已”

50) 그는 이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신속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예로 “人才各有天分初無界於南北特無明眼人開導之耳…走之初來耶頗示之以九經之色說之以文選之理皆恍不人如蚊嘴鐵壁或有來問者是史要聚選不爾則某題之頭項當作如何蓋其平日見聞不出此三家村中都都平丈耳若有處官師之尊以大力量順風一呼齊變魯變恐似不難”라고 하였다.

울의 양자 商懋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 특별히 제주유생 李時亨을 부탁하는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

“여기 이시형이란 사람은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난데 결단코 학문을 하고자 하니 그 뜻이 자못 예리하여 막을 수 없으므로 올려 보내니 함께 공부하여 보도록 하여라. 비록 그 견문은 넓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같고 닦게 한다면 족히 이 곳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뛰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는 것은 배를 타고 가야 하므로 늦을 것 같다.”⁵¹⁾

자기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울러 가졌던 것이 김정희였다. 이러한 까닭에 유배지에서도 문하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하에 제자들의 내왕이 빈번하다는 것은 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곧 교사의 권위문제이기도 하다. 추사는 그러한 권위를 독서활동을 통해 드러내고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勉菴 崔益鉉의 影響

면암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安達三, 金義正, 姜基碩, 金龍徵, 金燠, 金致琿, 金養洙⁵²⁾ 그리고 李基璠, 姜哲鎬⁵³⁾ 등의 제주도 지식인들과 중유를 한다. 원래 從遊란 학덕이 높은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는 행위로서 여기에 독서는 친교를 위한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 안달삼은 자신의 스승인 노사 기정진의 ‘疏章, 序, 記, 理氣說 약간 편을 옮겨 등사한 것’ 등 여러 편의 글을 면암에게 보여주는데⁵⁴⁾ 그 결과 면암은 “이는 우리 화서 선생의 지결과 대략 비슷하다고 등초하여 두 권의 책으로 만들어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⁵⁵⁾ 두 권의 책을 소중히 했다는 것은 유배지 제주도에서 면암의 독서활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그 결과 한말도학의 2대 학파인 화서학과와 노사학과가 연결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다.

면암은 1년 반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고 43세에 해배 되어 올라오는 길에 장성 하사로 78세의 노사 기정진을 예방한다. 노사는 최익현의 스승인 화서 이항로와 더불어 병인양요 때 척화상소를 올렸던 한말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예방은 감격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 감격을 두고 최익현은 “내가 제주에 있을 때는 한라산을 보았고 장성을 지날 적에는 기정진을 보았다.”⁵⁶⁾고 하였다.

교류했던 제주도 지식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면암이 자신의 門人이라 칭했던⁵⁷⁾ 김희정은 후

51) 金正喜 『阮堂先生全集』卷2, “此邑李生時亨年少才逸決意欲此學其志頗銳不可阻奪使之上去試與同研雖其見聞不廣若使磨足以傲此地不讀者耳其行從船而去似遲緩矣”

52) 『勉菴集』,年譜, “島中文士安達三金義正姜基碩金龍徵金燠金致琿金養洙諸人往來從遊”

53) 濟州島教育研究院, 『濟州教育通史』, 1974, 85~102쪽.

54) 『勉菴集』,書, “亟以島中時移謫安達三所藏門下文字疏章書記理氣說若干篇者出而示之”

55) 『勉菴集』,年譜, “先生自少景仰奇公德義曾於在謫時因其門人安達三得見其論學文字數十篇以爲此與我華西先生旨訣大畧相以達騰秒爲二冊子而歸”

56) 『勉菴集』,書, “吾在濟州見漢羅過長城奇丈席”

일 면암의 사우록에도 등재⁵⁸⁾된 사람으로서 명실공히 면암의 濟州初傳(제주도 1대 제자)이다. 당시 제주유림에서는 道學으로는 안달삼을, 詩學으로는 김희정을 南洲 제일인자로 손꼽았는데 그들의 능력은 면암과의 종유로 더욱 확장된다. 면암이 해배될 때 김희정을 동행⁵⁹⁾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면암의 김희정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강기석은 1858년에 진사에 급제했고 추사가 제주도 유배되었을 때 내방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면암보다 연장자였음이 분명한데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종유한다. 이 점은 이기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기온은 면암으로부터 橋巖이라는 雅號를 하사 받는다. 풀이름 암(菴)자를 쓰던 면암은 굴암에게는 바위 암(巖)자를 하사하는데 이러한 아호의 공유는 그들의 지적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이른바 의발제자의 전형이다. 원래 衣鉢이란 스승인 중이 제자에게 주는 袈裟와 바리때란 뜻으로 따라서 의발제자란 의미있는 사제 관계를 표현하는 수사다.

면암은 유배에서 풀려나자 1875년 3월 27일, 어른 10명 그리고 하인 5, 6명을 데리고 꿈에 그리던 한라산 등정 길에 나선다. 이때 士人 이기남이 길 인도하고⁶⁰⁾ 굴암 이기온과 윤규환 등이 동행하게 된다. 중도하차 하려는 일행들을 재촉하여 어려운 산행 끝에 백록담과 천불암 등의 명승을 두루 구경하게 된다. 이런 일을 두고 이른바 師弟同行이라고 한다. 이처럼 옛 선비의 시제관계는 사제동행이라는 ‘서로 만남’ 속에서 비로소 心許하여 終平生事之 私淑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사제가 서로 만남을 가질 때 독서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였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Ⅲ. 結論

조선조의 제주도 유배인들의 대부분은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저술과 독서활동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인격적 수양은 물론이며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길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동계 정운과 우암 송시열 그리고 추사 김정희, 면암 최익현 등 4명의 대표적인 제주 유배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독서활동의 면모를 밝혀보았으며 그로 인한 제주교육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독서는 성리학자로서 朱子의 독서관에 의지하는 바가 컸으며 그들의 다양한 독서내용은 물론이며 치열한 독서활동은 제주도 지식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제주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동계 정운은 유배 올 때 많은 서적을 가지고 왔는데 經史子集 수백 권을 10년 동안 돌아가며 열람하는 등 독서활동으로 유배활동을 대신했다. 그런가하면 제주도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독서에 열중하는 우암 송시열은 주자의 ‘虛心’, ‘平心’, ‘靜心’의 독서관을 모범적으

57) 『勉菴集』, 年譜, “門人金羲正舊館人尹奇福陪行”

58)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59) 脚注53) 參照

60) 『勉菴集』, 遊漢羅山記, “恩出棘遂定直計約士人李琦男前進指路冠者十餘下隸五六鐘焉時三月二十七日甲子也”

로 실증한다. 또한 종신무기수로서 9년간의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었던 추사 김정희는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며 왕성한 독서활동을 보여준다. 면암 최익현은 유배생활 동안에 주자와 우암을 독서의 대상으로 삼고 화서학파의 도학적 의리론을 견지해 나갔다.

이러한 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제주도 지식인들에게는 큰 교육적 자극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객관적인 정신이 담긴 전통의 수행자들과 미성숙한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정신적인 세계를 깨우쳐 주는 정신적 각성으로 보는 Flitner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제주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일련의 계몽(aufklärung)의 교육적 활동이었다. 이러한 계몽의 자극을 통해 일련의 제주도 지식인들은 척박한 제주도의 환경에서 교육의 길을 여는 계기를 갖게 되며 그러한 계기 통해 이후 제주교육은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제주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이었으며 죄수라는 그들의 입장 때문에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교류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교육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도 한정되고 비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주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제주도 지식인들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자극이었음은 명백하다. 원래 계몽이란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비추어 밝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두운 상태란 당대 조선조 제주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빛이란 제주유배인들이 행한 독서활동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제주유배인들의 독서활동은 제주교육을 자극한 강렬한 빛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小學』.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朱子語類』
『耽羅觀風案』.
金錫翼, 『耽羅紀年』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宋時烈, 『宋子大全』
정은, 『동계집』
崔益鉉, 『勉菴集』.
金奉玉, 『濟州通史』, 濟州: 濟州文化, 1987.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 지성사, 1999.
양진건,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2002.
尹絲淳, 『韓國儒學思想論』, 서울: 열음사, 1986.
李萬桂, 『朝鮮教育史』上,下, 서울: 乙酉文化社, 1949.
濟州教育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濟州教育通史編纂委員會, 『濟州教育通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4.
韓國教育史研究會, 『韓國教育史研究의 새 方向』, 서울: 集文堂, 1982.
玄相允, 『韓國儒學史』, 서울: 民衆書館, 1977.
Boyd,W. & King,E.J.,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75.
Cordasco,F., A Brief History of Education, Totowa: Littlefield, Adams & Co. 1976.
Iggers,G.G., New Direction in European Historiography,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Press, 1975.
Ulich,R.,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50.

A study on the effects of jeju-exiles' reading activities on jeju education.

Yang Jin-Geon
(Cheju National University)

Most of jeju-exiles during the Yi dynasty spent their banishment time mainly writing and reading. Through these activities they could not only cultivate their minds but also leave a great deal of intellectual heritage based on Confucian culture behind them. This study inquired the aspects of reading activities of four outstanding jeju-exiles, Dongae Jeong-On,(桐溪 鄭蘊) Uam Song Si-Yul,(尤庵 宋時烈) Chusa Kim Jung-Hee(秋史 金正喜), and Myunam Che Ik-Hyun(勉菴 崔益鉉) to find out their influences on jeju education. As scholar they did reading activities relying on Juja's(朱子) view of reading and both their various contents and their hot activities of reading set a good example to jeju intellectuals in those days.

Though jeju-exiles' reading activities were personal things, but they were ultimately touched with Flitner's position that an education is a spiritual awakening to wake up a spiritual world through the meeting of a mature teacher and immature students. Therefore, jeju-exiles' reading activities can be said to be a series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enlightenment.

An activity of brightening or clearing up something premises that it was in the darkness before the activity was done, so enlightenment itself has the meaning of brightening darkness with light. Here the darkness means jeju-do's conflicting situation, oppression and domination, and the light means reading activities of jeju-exiles. Their reading activities functioned as a strong light to wake up jeju education.

Key words : jeju-exiles, reading activities, jeju education, Dongae Jeong-On,(桐溪 鄭蘊) Uam Song Si-Yul,(尤庵 宋時烈) Chusa Kim Jung-Hee(秋史 金正喜), and Myunam Che Ik-Hyun(勉菴 崔益鉉)